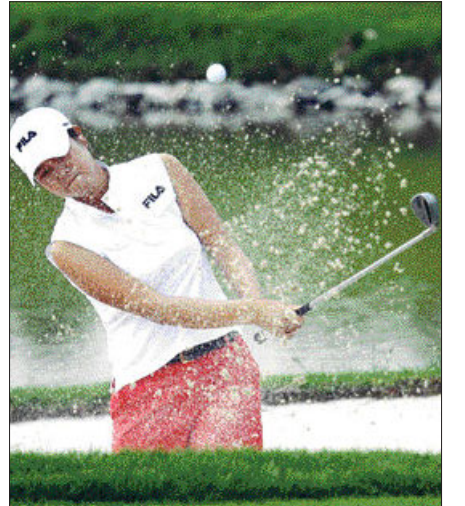




18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자유영 400m결승에서 전남대표 이지은이 역영하고 있다.

/김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희원 선수가 18일 태국의 아마타스프링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혼다 LPGA타일랜드 연습라운드에서 절묘한 버거샷을 하고 있다. /연말뉴스

“태국서 시즌 V10” 태극남자들 결의

시즌 9승을 합작한 뒤 10개 대회를 우승없이 보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리아인 파워’가 홈코스나 다름없는 태국에서 다시 정상에 도전한다. 20일부터 사흘간 태국 춘부리의 아마타스프링골프장(파72·6천392야드)에서 열린 LPGA투어 혼다 LPGA타일랜드 2006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15명. 올해 새로 창설된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 우승 가능성은 매우 높다. 출전 선수가 많지 않지만 무엇보다 태국 골프장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주니어 시절부터 프로 선수가 된 뒤에도 겨울 전지훈련지로 제 집 드

LPGA 타일랜드 20일 개막 김미현 등 한국선수 15명

나를 뜻했던 곳이 태국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김미현(29·KTF)은 태국인 사실상 홀이나 다름없다. 2005년~2006년 겨울 훈련지 역시 태국이었다. 김미현은 아마추어 때부터 해마다 태국에서 겨울 훈련을 소화했다. 한희원(28·힐라코리아)과 이미나(25·KTF), 안시현(22), 이지영(21·하이마트), 김영(25·신세계), 이정연(27) 등도 모두 어릴 때부터 태국 골프장과는 낯을 익혀왔다. 뿐 만 아니라 올해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으나 태국에서 태어나 태국에서 골프를 익힌 송아리(20·하이마트)는 생애 첫 우승을 ‘고향’에서 일궈내겠다는 꿈에 부풀었다. 시즌 2승에 상금랭킹 5위에 올라 있는 김미현과 상금 10위 한희원, 18위 이미나, 20위 이지영 등이 포진한 ‘한국 군단’을 견제할 이렇다 할 강호들이 많이 빠져있는 점도 시즌 10승 합작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18일 대전 복음사마장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승마 미장마술부문에서 최준상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국체전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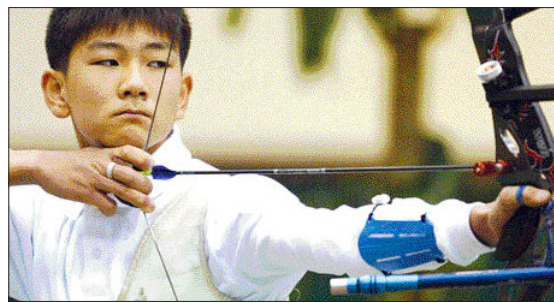
광주 최준상 훈련마 공수못해 아쉬움

○광주 최준상(28·삼성생명)이 승마 미장마술 대회 5연패에 나섰으나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훈련중인 독일에서 자신의 말을 공수해 오지 못해 4위에 머물러 관계자들이 한숨. 특히 최준상은 지난 12일 귀국해 자신의 애마인 ‘덴싱보이’ 대신 전북에서 빌린 ‘델타온’과 4일 호흡한 후 출전했으나 역부족. 최준상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연패의 금자탑을 세우며 매년 1천100여점을 광주에 선물했으나 올해는 600여점(배구 우승 점수)에 그쳐 광주의 점수 획득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 광주체육회 관계자는 “말이 순위의 70%를 차지하는 승마에서 말의 말을 빌려타고 4위에 올랐으면 대단한 성적이다”며 “독일에서 말을 공수하려면 3천여만원이 들기 때문에 말을 들여오는 것을 포기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

인라인롤러 스타 궤차이와 같은 속소

○“얼짱” 인라인롤러 스타 궤차이(19·안양시청)가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들과 같은 속소를 사용하고 있어 체육회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궤차이는 이번 대회 인라인 여자 일반부 15,000m 제외경기에 출전기 위해 김천시에 속소를 마련했는데 공교롭게 광주시체육회와 같은 속소를 사용해 광주시체육회 총각들의 아침잠을 설치게 한 것. 광주시체육회 직원은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궤차이를 실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김재형



세계新 쏘다

양궁 남고부 70m서 349점 대기록...중전기록 1점 앞서 조선대 축구팀, 연세대 제압 파란...광주 금8·전남 10개

제 87회 전국체전 이틀째인 18일 ‘무명 양궁 소년’인 전남 김재형이 남고 양궁에서 ‘깜짝’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등 광주·전남이 기록종목에서 예상외의 선전을 펼쳤다. 김재형(순천고 1·사진)은 이날 예선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남고부 70m에서 349점을 쏘 중전 세계기록인 348점을 1년만에 경신하며 금빛 파녘을 명증시켰다. 정대권(금성고 2)은 충북 음성벨로드롬에서 열린 사이클 남고부 스킨라치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여자일반 노효성(나주시청)은 24km포인트라이스에서 31점을 따내 금메달을 추가했다. 정세영(전남체육고2)은 여고 인라인롤러 EP15,000m에서 27분14초33으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따냈고, 유광선도 유도 남자일반부 100kg이하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레슬링 남고부 이주연(함평골프고 3)은 그레코로만형 58kg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수영 여고부 이지은(전남제일고2)은 자유형 400m에서 금빛 역영을 펼쳤다. 단체전에서는 핸드볼 남고부 무안고가 인천정석항공공고를 31-25로 누르고 무난히 2회전에 올랐고, 야구 일

반부에선 대불대가 경남대를 8-5로 꺾는 선전을 펼치며 전남 선수단에 소중한 점수를 보냈다. 또한 배구 남고부에서는 벌교제일고가 강호 대전중앙고를 3-1로 제압, 금메달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광주도 기대했던 양궁과 수영 등에서 금메달을 쏠줄이 었으며 사기를 올렸다. 박미경(광주시청)은 이날 양궁 여자일반부 60m에서 347점을 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남고부 임지완(광덕고 1)도 90m에서 328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수영에서는 남고부 이창봉(상무고 2)이 평영 100m에서 1분05초39로 금빛물살을 갈랐고, 유도 남자일반부 100kg급 이상에서는 김정훈(광주선발)이 경남 최성원을 누르고 금메달을 메웠다. 또 김우광(광주체고 2)이 태권도 남고 핀지에서 금메달을, 수중 남자일반부 표면100m에서는 나경수가 소중한 금메달을 추가했다.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히어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목표”

여고수영 자유형 400m 금 전남제일고 이지은

“한국신기록(4분15초 40)을 경신해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도전하겠습니다”

18일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 87회 전국체전 수영 여자 고등부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지은(전남제일고 2)은 지난해 은메달의 부진을 설욕했다고 기뻐했다. 현재 태릉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에 맞춰 훈련 하다가 4분 17초48의 기록밖에 작성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지은은 마무리 훈련만 잘하면 아시안게임에서 충분히 메달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영에 입문한 이지은은 중학교 시절 소년체전에서 자유형 200·400m 최강자로 군림했으며 2004년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게임에 지고 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근성이 뛰어난 이지은은 스타 트란 보강하면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가능하다는 평이다.

“한국신기록에 도전해야죠”

남고수영 평영 100m 금 광주상무고 이창봉

“열심히 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신기록에 도전하겠습니다” 18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고부 평영100m에서 금빛역영을 펼친 이창봉(상무고 2)은 오는 21일 남고부 평영 2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2관왕에 오르겠다고 당당히 소감을 밝혔다. 이창봉은 올 시즌 울산에서 열린 동아대회 평영100m·200m와 MBC배 평영 100m·200m에서 각각 2관왕에 올랐으며 대통령배대회에서는 50m·100m에서 2관왕에 오른 국내 고교 평영부분 최강자로 일찌감치 전국체



전 금메달 리스트로 기대를 받아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영에 입문한 이창봉은 지구력과 파이팅이 좋은데다 유연성이 뛰어나 한국신기록을 작성할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체력만 조금 보강하고 이대로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태극마크를 다는 것은 시간문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순천 상사골프클럽 개장

순천에 미니골프장(9홀)과 스윙연습장 등을 갖춘 상사골프클럽이 문을 열었다. 지난 14일 개장한 상사골프클럽(대표 김형순)은 순천시 상사면 마린리 170-20번지에 조성된 9홀 규모의 미니골프장을 개장했다. 상사골프클럽 스윙연습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미니골프장은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특히 미니골프장의 경우 1회 라운딩에 1시간이 소요돼 시간과 비용 제약으로 정규골프장을 찾기 어려운 골프동호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골프장 주변에 조경수와 인근 이사천 등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레스토랑과 야외카페까지 갖추고 있어 만남의 장소로도 각광받을 전망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